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067
----------	------

발의연월일 : 2025. 2. 11.

발 의 자 : 김태선 · 장철민 · 복기왕
이용우 · 한민수 · 허영
김태년 · 박홍배 · 이학영
윤종균 · 김주영 · 김영배
박균택 · 김남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령 해석 또는 관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

른 법 적용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u> <u>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u> <u>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u> <u>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는</u> <u>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u> <u>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주</u> <u>체의 동의를 있었다고 객관적</u> <u>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u> <u>한다.</u>